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KIA 타이거즈 이종환이 18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2010 CJ마구마구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경기에서 5회 솔로포를 포함 5타수 4안타의 맹타를 과시했다. 〈KIA타이거즈 제공〉

‘연습생’ 이종환 올핸 신화 쓴다

두산과 시범경기서 홈런포함 5타수 4안타 … 백용환도 깜짝쇼
이대진 이어 로드리게스 마저 부상 호소 … KIA 마운드 비상

이종환이 넘기고, 나지완이 끝냈다.

KIA 타이거즈가 18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경기에서 나지완의 끝내기 안타로 7-6 신승을 거뒀다.

4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이종환은 시범경기 첫 홈런포를 쏘아올리는 등 5타수 4안타의 맹타를 휘두르며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했다.

1회부터 이종환의 방망이가 불을 뿜었다. 1회말 2사 1루에서 김선우와 맞대결을 벌인 이종환은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팀에 선취점을 선물했다. 지난 3월9일 한화전 이후 7경기 만에 기록한 안타였다.

KIA 선발 서재응의 난조로 1-3으로 승부가 뒤집힌 2회, 이번에는 포수 백용환이 깜짝 스타가 됐다. 처음으로 선발 출전해 마스크를 쓴 3년차 백용환이 무사 1·2루에서 좌측담장을 넘기는 역전 쓰리런의 주인공이 됐다.

2008년 입단 후 3경기에 출전한 게 전부인 백용환은 스타팅멤버로 이름을 올린 것은 물론 시범경기 두 번째 타석만에 첫 안타를 홈런으로 신고했다.

4-3의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던 5회말 이종환이 다시 한 번 두산 마운드를 울렸다. 바뀐 투수 고창성을 상대로 우월 솔로포를 쏘아올린 이종환은 7회에도 우전안타를 때려 절정의 타격감을 과시했다.

이종환의 쇼는 9회에도 계속됐다. 6-6으로 맞선 9회말 2사 1루에서 이종환은 4번째 안타를 때려내며 2사 1·3루의 끝내기 찬스를 만들었다.

타석에는 단국대 재학시절 나란히 3·4번을 맡았던 이종환의 1년 선배 나지완이 들어섰다. 나지완은 후배가 만든 찬스에서 좌익수 키를 넘기는 끝내기 안타를 터트리며 팀의 7-6 짜릿한 승리를 이끌었다.

캠프에서 좌종환 우지완 ‘쌍포’로 기대를 모았던 두 선수가 모처럼 나란히 타석에 서서 팀의 승리를 장식했다.

신예선수들의 화끈한 방망이쇼가 진행된 타선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에 반해 KIA 마운드는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와 부상으로 비상이 걸렸다.

전날 SK와의 경기에서 선발 후보 이동현이 제구가 잡히지 않으면서 2이닝 동안 3피안타 2사사구 2개의 폭투로 3실점(2자책)을 한데 이어, 이날 선발로 등판한 서재응은 1회 탈삼진 두 개를 잡아내는 등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지만 2회에만 3개의 2루타와 홈런을 허용하는 등 만족스럽지 못한 투구를 보여줬다.

또 다른 선발 후보 이대진이 기흉으로 수술받은데 이어 용병 로드리게스마저 훈련 도중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면서 KIA 마운드에 빨간불이 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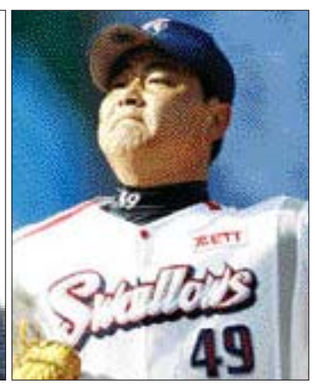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요미우리 이승엽〉

〈지바롯데 김태균〉

〈소프트뱅크 이범호〉

〈야쿠르트 임창용〉


〈야쿠르트 이혜천〉

한국인 5형제 “日야구 우리가 이끈다”

김태균·이범호 몸 담은 퍼시픽리그 내일 스타트
이승엽·임창용도 절치부심… 한국팬들 관심 집중

일본프로야구가 20일 개막해 팀당 144경기씩 치르는 6개월간 대장정에 들어간다.

김태균(28·지바 롯데)과 이범호(29·소프트뱅크)가 뛸 퍼시픽리그가 20일 먼저 스타트를 끊는다. 개막 3연전은 니혼햄-소프트뱅크(삿포로돔), 세이부-지바 롯데(세이부돔), 오릭스-라쿠텐(교세라돔)으로 짜였다. 퍼시픽리그는 23~25일을 쉰 뒤 센트럴리그가 시작하는 26일에 맞춰 정규 시즌을 재개한다.

이승엽(34·요미우리), 임창용(34)과 이혜천(31·이상 야쿠르트)이 경쟁할 센트럴리그는 26일 막을 연다. 요미우리-야쿠르트(도쿄돔), 주니치-히로시마(나고야돔), 한신-요코하마(교세라돔)가 일전을 벌인다.

한국 선수 5명이 뛰는 올해는 일본 무대에 쏠린 한국 야구팬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이글스에서 10년 가까이 한솥밥을 먹은 김태균과 이범호는 이제는 적이 돼 팀의 명예를 건 방망이 대결을 펼치고 올해를 끝으로 다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이승엽과 임창용, 이혜천 역시 부와 명예를 위해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쏟아낼 참이다.

◇김태균·이범호·이혜천 ‘맑음’…이승엽·임창용 ‘우중충’=3년간 최대 7억엔을 받고 지바 롯데 유니폼을 입은 김태균은 16일까지 시범경기에서 타율 0.342를 때리고 홈런 2방에 7타점을 수확하며 성공적으로 적응을 끝냈다.

부챗살 타법을 뽐내며 시범경기부터 4번을 꿰찬 김태균은 1루수 또는 지명타자로 기용될 전망.

시범경기에서 타율 0.270을 때리고 홈런 1개를 기록한 이범호도 주전 한 자리는 굳혔다.

7일 요미우리와 경기에서 거대하기로 소문난 홈구장 후쿠오카 야후돔의 백스크린 쪽을 향해 130m짜리 투런포를 터뜨리고 화력 시범을 보인 이범호는 3루 경쟁자 마쓰다 노부히로가 워낙 부진했던 탓에 비교적 쉽게 붙박이 3루를 꿰찰 것으로 점쳐진다.

2년차를 맞아 선발 로테이션 진입에 도전 중인 이혜천도 순항 중이다. 16일 현재 2경기에서 1승, 평균자책점 2.25를 기록하며 좋은 인상을 남겼다. 토니 바넷, 에울로 데라크루즈와 4선발 경쟁 중이나 오른손 투수인 이들보다 쓰임새가 많아 제구력만 잡힌다면 요긴하게 중용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와 4년 계약 마지막 해를 맞은 이승엽은 절치부심 칼을 갈았지만 제대로 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다카하시 요시노부, 가메이 요시유키, 알렉스 라미레스와 험난한 1루 경쟁을 치르고 있다.

시범경기에서 대타, 대수비로 출전하다 보니 타격감을 이어가지 못해 가장 아쉽다.

임창용은 몸이 덜 풀린 탓인지 16일 오릭스와 경기에서는 만루 홈런을 얻어맞고 패전투수가 됐다. 4경기에서 세이브 2개를 올렸지만 평균자책점이 13.50까지 치솟아 불안감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진흥고 황금사자기 16강

동산고에 10대0 콜드게임승

광주 진흥고가 인천 동산고를 콜드게임승으로 제압하고 황금사자기 16강에 진출했다.

진흥고는 18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동산고와의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2회전에서 기동력과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10-0, 5회 콜드 게임승을 거뒀다.

3회말 선두타자 이태호가 볼넷으로 출루한 뒤 도루에 성공하면서 진흥고의 공세가 시작됐다. 이주호의 희생번트로 만들어진 1사 3루에서 박병우의 폭투로 선취점을 얻은 진흥고는 김도현의 적시타와 장민규의 내야안타로 3-0을 만들었다.

4회 4개의 볼넷을 골라낸 진흥고는 밀어내기와 김성욱의 2타점 적시타로 7점차까지 도망갔다. 동산고는 조상우로 투수를 교체하며 맞섰지만 실책과 폭투로 자멸하면서 콜드게임패를 당했다.

동성고에 이어 동산고를 꺾고 16강에 오른 진흥고는 22일 경남고-강릉고전 승자와 8강행 티켓을 놓고 맞붙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GS칼텍스 14연승 질주
프로배구 여자부 최다연승

프로배구 GS칼텍스가 도로공사를 꺾고 여자부 역대 최다인 14연승을 내달렸다.

GS칼텍스는 18일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09-2010 프로배구 6라운드 홈경기에서 도로공사를 3-1로 꺾었다. 이로써 GS칼텍스는 지난 1월10일부터 14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해 흥국생명이 2007-2008시즌에 기록한 여자부 역대 최다 13연승을 넘어서는 신기록을 작성했다.

GS칼텍스는 또 역대 최다 기록인 홈 12연승 행진도 함께 이어갔다.

남녀 프로배구를 통틀어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은 남자부에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두 시즌 동안 삼성화재가 올린 17연승이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야구단 명칭 공모

대한야구협회가 여야 국회의원 간 친목 도모와 야구 발전을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야구단의 명칭을 공모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관심 있는 팬들은 야구협회 수장이자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강승규 회장의 홈페이지(http : //www.kangnara.com), 블로 그(blog.naver.com/ hiseoulkang), 트위터twitter.com/kangnara)에 팀 이름과 의미를 140자 이내로 작성해 보내면 된다. 최종 당선작은 23일 발표된다. /연합뉴스

‘양키스맨’ 박찬호 첫 출격

오늘 탬파베이와 시범경기
4개월만에 실전피칭 기대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로 이적한 박찬호(37·사진)가 19일(한국시각) 공식 경기에 시즌 처음으로 등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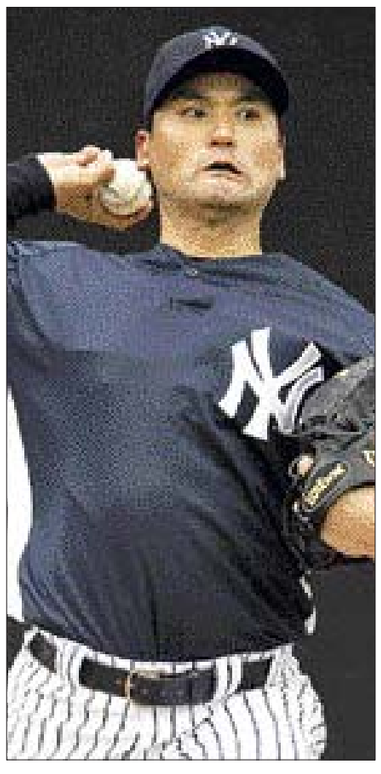
양키스는 18일 홈페이지에 박찬호가 19일 오전 8시5분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의 조지 스타인브레너 필드에서 열릴 탬파베이 레이스와 시범경기에서 마운드에 오른다고 전했다.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입고 월드시리즈를 뛰었던 박찬호는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에 실전에 나선다.

지난달 양키스와 1년간 최대 150만 달러에 구원투수로 계약한 박찬호는 지난 1일 스프링캠프에 합류했고 3주 만에 출격 채비를 마쳤다. 계약이 늦어졌지만 한국에서 훈련할 때 타자를 세워놓고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했던 박찬호는 캠프에서도 두 차례 이상 실전과 똑같은 라이브 피칭을 하고 투구 감각을 끌어올렸다.

양키스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등판할 박찬호가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과 조 지라디 감독에게 어떤 인상을 남길지 주목된다. 둘은 일찍부터 베테랑 불펜 요원 박찬호가 정규시즌에서 너끈히 1이닝을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계투에서 활약했던 조바 챔벌레인(25)과 필 휴즈(24) 두 강속구 투수가 5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박찬호는 마무리 투수 마리아노 리베라(41) 바로 앞에 등장하는 셋업맨에 기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2안타

시범경기 타율 3할7푼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안타 2개를 터뜨리고 미국프로야구 시범경기 타율을 0.375까지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18일(한국시각) 미국 애리조나주 굿이어의 굿이어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경기에서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출장, 4타수 2안타를 때리고 1타점을 올린 뒤 7회말 수비부터 교체됐다.

한편 추신수는 클리블랜드에서 지난 10년간 뛴 최고의 외야수 중 한 명으로 뽑혔다.

클리블랜드 구단 공식 홈페이지는 18일 ‘클리블랜드 2000년대의 팀’을 선정하며 포지션별로 가장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스타를 발표했다. 3명을 뽑은 외야수 부문에서는 추신수가 그래디 사이즈모어, 케니 로프턴과 함께 선정됐다. /연합뉴스